



### 노키아, 신규 3G 휴대폰 3개 기종 공개

노키아가 3세대 휴대폰 3개 기종을 공개했다. 모두 디지털 카메라와 음악 플레이어가 장착된 320×240픽셀 QVGA 디스플레이 채용 제품이다.

노키아 6282는 1메가 픽셀 카메라를 탑재한 박형 슬라이드 제품이다. 미국 지역에서 2006년 판매가 시작될 예정으로 1900MHz의 UMTS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첫 모델이다. 이 서비스 진행 지역에서 1분기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노키아 6234는 보더폰을 통해 각국으로 보급될 예정인 모델이다. 보더폰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채용했다. 2메가 픽셀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QVGA 디스플레이로는 디비오 등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노키아 6233은 클래식한 디자인의 기업용 3세대 휴대폰이다. 2메가 픽셀 카메라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구비한 외 SyncML을 사용해 일정이나 연락처 같은 정보를 간단히 동기화시킬 수 있다. 2006년 4~6월 경 출시될 예정이며, 가격은 235유로이다.

### 日 모바일 와이맥스, 07년 서비스

일본이 2.5GHz대 신규주파수 대역을 '모바일 와이맥스(IEEE 802.16e) 용으로 할당, 2007년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전망이다.

일본외신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신규 무선서비스에 할당되는 '2.5GHz'대 배정과 관련, 이를 비(非)IMT-2000계에 할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 총무성이 무선 브로드밴드 보급을 위해 '이동통신' '유선밴드 대체' 'ITS' '정보기전용 네트워크' 4종류를 상정, 검토해 온 주파수 대역은 2.535G~2.605GHz의 70MHz 대역으로 이는 ITU가 IMT-2000용으로 할당한 것이다.

총무성 산하 '무선 브로드밴드 추진연구회'가 업계 의견을 수렴, 최종 작성한 보고서에는 모두 10건의 의견 중 8건이 'IEEE802.16e나 차세대 PHS가 적당하다'고 밝혀 기존대로 IMT-2000을 주장한 견해(2건)를 압도했다.

이와 관련, 총무성 한 관계자는 "활동을 본격화 해 상용서비스까지 빨라야 2년이 걸린다"며 "이미 내년 6월 모바일 와이맥스 서비스를 시작하는 한국을 따라잡을 순 없지만, 2년후인 2007년에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 타임위너-MS 제휴설, '구글 대항'

구글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미디어 대기업인 타임 위너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온라인 광고 서비스에서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7일 보도했다.

양사는 이미 수개월전부터 이와 관련, 교섭을 진행중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고 관련 사업을 통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교섭은 타임 위너 산하 AOL이 MS의 MSN 서비스를 채용하는 형태가 유력시 된다. 현재 AOL은 구글의 검색엔진을 이용하고 있으며, 구글은 AOL 이용자 검색에 의한 광고 수입 일부를 AOL에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구글이 AOL에 지급한 총액은 3억 달러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